

중학생의 학업성취 및 자율성 발달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경로분석 -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오 현 숙[†]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에 관한 영향 요인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여 이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요인들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의 3개 중학교에 다니는 109명의 남녀 중학생(남=55, 여=54)과 그들의 어머니(n=109)가 기질 및 성격검사 성인용 및 청소년용, 부모의 사회적 지원 설문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설문지, 학생의 평균성적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로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와 자녀 개인 관련, 그리고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차원에서 조사된 총 10개의 변인 중 오직 가족 경제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중에서는 특히 정보적 지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자율성 발달에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통해서 가족 경제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율성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학생의 자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 없이 자신의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은 자녀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연구결과들이 학업성취를 높이고 자율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방법과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학업성취, 자율성 발달, 사회적 지원, 자극추구, 경로분석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현숙,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E-mail : hyunsookoh@hs.ac.kr

청소년기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은 학업성취라고 보고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가 있다. 토착심리학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의식을 조사한 이 연구는 한국의 성인들 또한 가장 성공적인 가정생활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자녀의 발전 및 화목한 가정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곧, 한국의 성인은 가족의 행복이나 불행의 원인까지 자녀의 교육적인 성취에서 찾으려는 귀인현상(박영신, 김의철, 2002)을 나타내며, 학생의 학업성취는 학생 본인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박영신, 김의철, 2009) 그들의 부모에게도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굳이 연구결과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한국인이면 누구나 교육과 교육적 성취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면서 ‘1년 국방비에 버금가는 21조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나라’(헤럴드경제, 2010-01-05)이며, 200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학력평가 조사(15세 이상)에서 한국이 핀란드에 이은 종합 2위와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조선일보, 2009. 05. 06)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다.

개인적 기준의 학업성취는 사실, 문화를 초월하여 어느 나라에서건 아동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성공감이며 자기 유능감의 주요 요인으로서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과 청소년의 자율성 및 자기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는 비단 개인적 발달의 의미를 넘어서 학력주의라는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봉미미 등, 2008) 학생 본인과 그들의 부모에게 전 세

계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가 가진 이러한 중요한 의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개인적으로는 이에 적응하지 못할 때 학교부적응, 불안, 우울, 비행 등 여러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학업성취의 문제는 이것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간과한 채 무조건적으로 강조될 때 부적응적인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성취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업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들의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이라고 보여 진다.

학생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은 학업성취라고 보고하였던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에서 학생들은 또한 성공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부모라고 하였다. 선생님이나 친구는 그 다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국의 청소년에게 학업성취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청소년 스스로 여기에 기여하는 것은 부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한국의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가정하고 학업성취에서 부모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학교심리, 교육심리 또는 아동학이나 청소년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수행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의 경제 및 부모의 교육 수준

등과 같은 가족 자원을 다룸으로써 두 범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이 두 범주의 변인들을 모두 고려한 것들도 상당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원은 서로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둘 다 자녀에 대한 행동의 경향성(남순현, 임소영, 2006; Cohen & Hoberman, 1983; Fishbein & Aizen, 1975)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다.

30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적과의 관계를 조사한 이화순의 연구(2003)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부와 모 모두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학업성적의 차이는 상, 중, 하의 순위로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부모의 애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를 토착심리학적 차원에서 종단적으로 분석한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 성취압력, 자녀에 대한 기대 등 일종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과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국청소년패널 조사’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분석한 이은우의 연구(2006)에서는 부모의 소득, 학력, 직업과 같은 가족의 자원과 사교육이 청소년의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 구분된 청소년 집단은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의미 있는 성적 차이를 나타냈으며, 소득계층별로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성적 차이는 9.4%가 사교육의 차

이이고 65.3%가 가족자원의 차이인 것으로,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는 17.5%가 사교육의 차이이며 38.4%가 가족자원의 차이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런데 일련의 연구들은 가족 경제,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가족자원이나 가족배경요인 또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학생 981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 또는 양부모의 가족구조에 기인한 부모의 소득수준과 성적과의 관계를 조사한 추상엽과 임성문의 연구(2007)에서는 이를테면 가족구조 변인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변인 사이에 부모의 학업지원 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였을 때는 가족구조변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족구조 및 소득수준은 청소년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학업지원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청소년기는 사실 학업성취 못지않게 인성발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사춘기의 청소년은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나 돌봄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분리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자율성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신체적, 성적 변화와 함께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자율성 발달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거치면서 성인기로 전환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자율성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Havighurst, 1948, 1952; Erikson, 1977; Blos, 1983)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독립

된 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성인기로의 적응을 위해서 중요한 자율성의 증가가 항상 긍정적인 성격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Beyers, & Goossens, 1999; Chou, 2000, 2003; Hendry, 1993; Newcomb & Bentler, 1988).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에 관한 학자들의 관심이 경험적 연구로 이어진 것은 그리 오랜 일은 아니며, 지난 80년대 Steinberg와 Silverberg(1986)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변화를 강조하면서 정서적 자율성척도(Emotional Autonomy Scale: EAS)를 개발하게 되면서 비로소 활발해졌다. 일련의 연구들이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지각하기, 부모에 대한 탈 의존, 그리고 개별화의 4영역으로 척도화한 EAS를 통해 청소년의 자율성을 측정하였고 이들 연구 중 상당수가 청소년의 자율성 증가와 함께 부적응적 발달결과가 초래됨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일탈행동이 증가하고 성적이 하락되며(Beyers & Goossens, 1999), 이 밖에도 우울(Chou, 2000), 약물중독(Chou, 2003), 비행(정진경 등, 2005) 등 다양한 문제가 관련됨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그러나 이렇게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행동상의 문제는 첫째,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문제로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적절히 다룰 수 없으므로써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Lamborn과 Steinberg(1993)는 부모의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는 정서적 자율성 척도, EAS의 변인들과 독립성, 자신감,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음 등의 변인들과의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얼마나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부모자녀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부모가 얼마나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지(Steinberg, Dornbusch, & Brown, 1992)가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율성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율성이 바람직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에 주로 사용된 EAS척도에는 자율성에 성숙의 개념이 빠져있으면서 성숙의 의미의 진정한 자율성이기보다는 유사성숙(pseudomaturity)과 관련된 자율성을 측정한 결과가 바로 청소년의 자율성 증가에 따른 부정적 적응문제일 수 있다. 외적으로 성인인양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자율성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독립적 행동이 비행이나 여러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정서적 자율성 척도 EAS의 타당도를 비판한 연구들이 많다(Beyers, Goossens Vansant, & Moors, 2003; Marsche, 2003; Landgraf, 2003; Schmitz & Baer,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정서적 자율성 척도 EAS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는 것이 건강하고 자율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라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부모와의 분리만을 측정하고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정서적 자율성 획득은 부모와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면서도 상호 자율적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여러 이론들이 부모와의 분리 외에 다른 개념들을 자율성에 포함시키는 시도를 하였다(Noom, 1999; Ryan & Deci, 2000). 특히

Greenberger(1984)는 자율성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성숙으로 설명하였다. 성숙의 개념이 바로 자율성의 정의에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독립성, 내적 통제, 자기주장과 같은 개념들이 관계한다고 하였다. Noom(1999)은 또한 자율성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분리를 강조한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대조적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은 타인과의 지지적 관계 맥락 안에서 더욱 촉진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도 더 원만하게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이 긍정적 적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역할 또는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성숙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자 발달과업으로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주목한 본 연구는 바로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역할, 즉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라고 가정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원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관심, 보살핌, 인정, 격려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행동의 경향성(Cohen &

Hoberman, 1983; Fishbein & Aizen, 1975)으로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지지라 할 수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은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은 한편으로는 청소년 자신의 성격특성 중 타고난 특성인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Cloninger 등(1994)에 의하면 기질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율성과 연대감과 같은 성격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들의 이론이 제시하는 기질 요인들, 즉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중에서 무엇이 어떻게 자율성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기질은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성향으로서 이 기질요인들은 강도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히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거나 이와 반대로 마찰이나 갈등을 더 잘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기질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같은 기질적 특성과 강도를 지닌 개인일지라도 환경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 발달이나 다른 성격적 특성의 발달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율성과 같은 성격발달이나 정신병리적 발달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Cloninger, 1994; Goth, 2000). 그러나 아직 어떤 기질 요인이 일차적 사회 환경인 부모와 가장 크게 상호 영향을 주며 청소년의 발달과

업인 자율성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찾기는 힘들다.

기질과 학업성취와의 연관성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 외의 변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전에는 인성(Personality)의 특성을 유전적 요인의 타고난 특성, 즉 기질(Temperament)과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성격(Character)으로, 심리측정적 의미에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Cloninger, 1999; Cloninger & Svrakic, 1997; Cloninger et al., 1994) 학업성취와 관련된 요인으로 기질 개념보다는 더 상위 개념인 인성(Personality)개념을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들로서 Dollinger(1991)의 연구에서는 체험개방성이 성실성과 함께 학업성취와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Zhang(2003)의 연구에서도 성실성과 체험 개방성이 정적 상관을 나타내면서 학업성취에 대한 예언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실성은 자신감, 유능감, 책임감, 목적의식과 관련됨으로써 자율성을 포함한 성격에 해당되지만 체험개방성은 신기하고 진기함을 좋아하고 자극을 찾는 높은 자극추구 기질과 낙천적이어서 체험에 대해 위축, 또는 억제되지 않는 낮은 위험회피기질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기질 요인이 특히 학업성취 및 자율성에 관련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 또는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또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및 자율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박영신 등, 2002; , 2004; 이화순, 2003, 추상엽, 임성문, 2007; Lamborn & Steinberg, 1993). 그런데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다루면서 첫 번째, 사회적 지

원을 일방적으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인 특성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자녀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독립된 태도인 것처럼 다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은 일종의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자녀에 대한 반응방식으로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일방적 태도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하건데 부모의 태도는 부모가 미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 성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원과 같은 부모의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긍정적 영향이지만 이것은 부모가 전적으로 일방향적으로 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자녀로부터 촉진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기질은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속성이기 때문이다(Cloninger et al., 1994). 따라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자녀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양방향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존연구들의 제한점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성숙의 개념이 부재함으로써 발달적 의미의 자율성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여러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과 학업성취에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며 이 때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 자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청소년의 자율성과 학

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양방향적인 영향력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 자녀의 변인은 청소년의 성격 특성 중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인 기질로 보았다. 예를 들어 타고난 기질적 특성 중 사회적 보상신호와 타인의 정서에 민감함을 말하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성향의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에게 애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위험회피 성향이 큰 청소년은 근심이 많고 미리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향으로 인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도와주고 보살피주어야 한다는 보호본능을 자극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들 중 무엇이 특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다음 청소년의 기질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이 외에도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궁극적 목적에서 그 영향 변인을 탐색한 다음 이 변인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모델은 탐색과 검증의 혼합모델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특성 중 기질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고 아울러 청소년의 자율성을 성숙의 의미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Cloninger(Cloninger et al., 1994)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성검사¹⁾으로써 이 검사는 요인분석에 의해서 구성되

고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격검사인 5대 요인검사 Big Five(Costa & McCrae, 1985; Goldberg, 1981, 1993)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성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인간의 인성 특성에는 기질이라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타고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것을 심리측정적으로 구분해내지 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격학자이면서 기질을 가장 많이 연구한 Eysenk(1970) 또한 인성으로부터 기질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기질이 곧 인성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펼쳤고 근래까지도 성격이론에서 기질과 성격의 구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성발달과 예방심리학적 관심에서 Cloninger는 가계연구와 쌍생아 연구의 오랜 종단연구를 통해서 인성의 유전적인 요인, 즉 기질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어 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질을 유전적으로 서로 복합적이지 않은 단일한 요인으로 구분하고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Cloninger, 1999; Cloninger & Svrakic, 1997; Cloninger et al., 1994). 곧, Cloninger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의해서 인성은 비로소 타고난 특성인 기질과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성격으로 구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격(Character)은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며 일생동안 지속적인

1) 본 논문에서는 Cloninger et al. (1994)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따라서 personality는 인성, temperament는 기질 그리고 character는 성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를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personality 개념 또한 모두 인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로 발달한다는 Cloninger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 자녀의 가장 강력한 변인은 일생동안 안정적인 속성의 기질이라고 보았다. 청소년 자녀의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청소년 자녀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성격적 특성 중 하나인 자율성발달을 촉진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율성 개념은 Cloninger의 심리생물인성모델의 성격의 한 차원이며 성숙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Cloninger는 성격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관련하며 자기개념발달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자율적 자아로 이해하는지, 얼마나 사회의 일부로 여기는지, 얼마나 우주의 일부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3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자기초월을 뺀 자율성과 연대감은 성숙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자율성의 개념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인 자기결정력과 의지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정서적 자율성 척도(EAS)가 지나치게 부모와의 분리를 강조한 데서 생긴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자율성을 의사결정과정을 주체적으로 실행해나가는 개인의 발달적 특성이라고 강조한 Noom(1999)의 개념에 상응한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탐색과 검증의 혼합모델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기질 중에는 학업성취와 자율

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질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 자녀의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3. 어머니의 기질, 성격과 같은 개인적 요인, 교육수준, 가족의 SES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서로 차이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들을 통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 자녀의 기질, 자율성 발달, 학업성취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변인들은 모두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경기도 소재의 3개 남녀 중학교 학생과 이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서로 다른 3개 중학교의 각 1개 반 교사들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성인용과 청소년용 각각 120부로서 총 240부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4개 이상의 문항에 무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시켰을 때 학생의 경우에는 116명의 자료가, 어머니의 경우에는 109명의 자료가 분석 가능하였으나 본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영향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조사이므로 최종 연구 대상은 어머니와 자녀의 109쌍이 되었다. 남학생은 55명, 여학생은 54명이었고 평균연령은 14.18세(SD=.75)였으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2.23세(SD=3.21)였다. 표 1-3은 연구에 참여한

표 1. 어머니의 연령분포

	35-40세	41-45세	46-50세	51세 이상	합계
빈도(%)	37(33.9)	54(49.6)	16(14.7)	2(1.8)	109(100)

표 2. 어머니의 학력분포

	중졸 미만	중졸	고졸	대졸 이상	합계
빈도(%)	0(0.0)	6(5.5)	53(48.6)	50(45.9)	109(100)

표 3. 지각된 가족경제 수준

	하	중하	중	중상	상	합계
빈도(%)	1(0.9)	6(5.5)	69(63.3)	28(25.7)	5(4.6)	109(100)

어머니의 연령, 학력 및 가족 경제수준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속했으며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대다수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측정 도구

기질 및 성격검사 TCI(성인용) 및 JTCI(청소년용)

청소년의 기질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질 및 성격검사 JTCI(오현숙, 민병배, 2004)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어머니의 인성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 성인용 기질 및 성격검사 TCI(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를 사용하였다. 성

인용 TCI와 청소년용 JTCI는 모두 Cloninger 등 (1994)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의해 구성된 검사들로서 한국형으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Cloninger의 심리생물인성모델은 개인의 인성(Personality)을 유전적인 요인인 기질과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성격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유전적인 요인인 기질은 뇌구조 및 뇌신경체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개념으로서 행동 활성화와 억제 및 유지에 관한 우리 뇌의 행동조절시스템의 발달양상에 대한 개인차이며, 도파민, 세로토닌, 노어아드레날린의 신경전달물질의 방출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일생동안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속성으로 설명되는 기질은 행동적 측면에서는 자극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정의된다(Cloninger, 1999; Cloninger, 1994; Cloninger & Svrakic, 1997).

Cloninger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서 기질은 총 4개의 상위 기질척도로 구분된다. 곧,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인내력(Persistence)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극추구는 새로운 자극과 보상단서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고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자하는 유전적 경향성에서의 개인차이다. 신경전달물질로는 도파민과 관련된다.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은 탐색적 호기심이 많고 흥분을 잘하며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다. 자극추구가 낮은 사람은 자극에 잘 이끌리지 않으며 단조로움을 잘 견디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다. 위험회피는 보상부재와 처벌 단서 앞에서 행동이 위축되고 억제되는 유전적 개인차이다. 신경전달물질로는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다.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은 세심하고 꼼꼼하며 근심 걱정이 많고 쉽게 불안해한다. 이것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여유 있는 타고난 낙천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둘 다 노어아드레날린의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다. 한 번 시작한 행동은 중간에 보상이 끊기더라도 계속 지속하는 유전적 경향성에서의 개인차이며 이러한 경향성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사회적 민감성이며 일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인내력이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애정적이다. 이 특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정서와 사회적 보상 신호에 둔감한 편이며 실용적이고 객관적 사고에 강하다. 인내력이 높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목표를 이루고 과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 특성이 낮은 사람은 게으르다 할 수 있으며 타고난 실용적 타협가이다.

성격(Character)은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다. 자기개념

의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 체험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관련된다. 성격은 개인이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이해 방식에 따라서 총 3개의 상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신을 얼마나 자율적 자아로 이해하는지, 얼마나 사회의 일부로 여기는지, 또 얼마나 우주의 일부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로 구분된다. 자율성은 자기결정력과 의지력이 핵심 개념이면서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연대감은 타인수용과 타인과의 동일시에서의 개인차를 일컫는다. 자기초월은 우주만물의 수용, 우주와의 동일시 또는 일체감에서의 개인차이다. Cloninger의 모델에서 성격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자기초월을 제외한 자율성과 연대감의 두 척도는 성격의 성숙도와 발달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된다.

전국단위 규모로 한국형으로 표준화된 JTCI 청소년용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가 측정 개념의 범위가 넓은 사회적 민감성과 자기초월에서만 .63과 .66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모두 .70- .81사이에 분포하여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재검사 신뢰도는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한 수준인 .81- .95 사이에 분포한다.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규모에서 한국형으로 표준화된 TCI의 경우는 일반성인집단의 내적합치도는 .77- .88, 대학생집단은 .83- .90의 범위에 분포하면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재검사신뢰도 또한 .76- .90 사이를 나타내면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질문지

사회적 지원 질문지는 김의철, 박영신(1999)

이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 1학급을 대상으로 구성,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조사된 학생들에게 평소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을 자유응답식으로 5개씩 기록하게 하였고 이것은 ‘이해 격려 및 정서적 지원’, ‘충고 조언 및 정보적 지원’, ‘생활의 안정 및 경제적 지원’의 세 유목으로 분류되었다. 문항의 수정을 거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각 6개씩 총 18개의 문항이 완성되었고 내적 합치도로 산출된 신뢰도는 .82- .93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검사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러 상이한 연구 집단에 활용됨으로써 타당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2010). 이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므로 본 연구 집단에서 다시 내적 합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을 때 정서적 지원의 경우는 .87, 정보적 지원은 .72,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71을 나타냄으로써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성적)

JTCI 청소년용은 기질 및 성격에 관한 질문과 별도로 개인의 독해능력과 성적을 파악한다. 필요한 경우 두 변인이 기질 및 성격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수검자인 청소년은 100점에서 50점 이하까지 10점 단위로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평균성적에 해당하는 구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절차

연구자는 경기도 수도 권역에 위치한 서로 다른 3개 중학교 교사에게 직접 두 개의 검사

를 전달하였다. 이때 검사목적과 검사 도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들은 검사 환경에 민감하고 복잡한 설명과 연습이 필요한 도구들도 아니고 특별한 검사 지시사항이 요구되는 검사도 아니지만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사실시를 위해서 교사들에게 짧고 간단하며 단순한 검사 지침대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검사는 안내 받은 교사의 감독 하에 자율학습 또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교사들은 안내받은 대로 지시문 외의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분석

청소년의 기질과 학업성취, 자율성 및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간의 경로분석을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 가설에 맞게 자녀의 기질 요인에서 학업성취와 자율성으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한 후 청소년의 기질과 학업성취, 자율성 및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인과관계를 경로모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이상의 가설검증은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 과

중학생의 기질, 자율성 발달, 학업성취 및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상관

중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이 자신의 기질 특성으로부터,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먼저 그 분석 자료가 되는 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총점 수준에서는 타 변수와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하위척도인 정보적 지원 차원에서 자율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그리고 학업성취와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기본 가설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의 기질 요인들은 자율성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중학생의 기질 요인이 자율성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다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는 기질 중 자극추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아래에 제시되는 회귀분석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하고 강력한 변인으로 탐색된 가족 경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총점 및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중학생의 학업성취(성적)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중학생의 기질, 학업성취, 자율성 발달의 경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은 어머니의 기질과 성격의 7개 상위척도, 연령, 학력, 가족 경제수준의 총 10개의 변인이었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위해서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beta_k=0$ 에 대한 가설검정의 F값의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은 경우의 변수를 선정하였고 F값의 유의확률이 .10보다 큰 경우 변수를 제거하는 단계방법을 선정하

표 4. 중학생의 기질, 자율성, 학업성취(성적) 및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기질	1. 자극 추구	1.00									
	2. 위험 회피	.11	1.00								
	3. 사회적 민감성	.05	.45**	1.00							
	4. 인내력	.38**	.28**	.41**	1.00						
모 사회적 지원	5. 자율성	.23*	.49**	.39**	.40**	1.00					
	6. 성적(등급)	.20*	.08	.06	.17	.01	1.00				
	7. 전체	-.03	-.03	-.03	-.14	-.17	.11	1.00			
	8. 정서적 지원	-.12	-.04	.01	-.12	-.16	.01	.88**	1.00		
	9. 정보적 지원	.00	-.06	-.07	-.14	-.19*	.22*	.87**	.64**	1.00	
10. 경제적 지원	.08	.04	-.01	-.10	-.09	.06	.81	.56**	.57**	1.00	
11. 가족 경제	.07	-.20*	-.02	.02	-.08	.20*	.38**	.23*	.40*	.36**	1.00

* $p < .05$, ** $p < .01$

였다. 표에서 보듯이 이 기준에 의하면 가족 경제만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을 모델1이라고 할 때 모델 1의 적합도는 $F(1, 107) = 18.45, p < .001$ 로 나타나서 적합한 모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공차한계=1.00, 분산팽창계수 VIF= 1.00으로, 즉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지 않고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분석에 이용되지 않은 변수들의 준거변인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F 값의 유의확률에 따른 변수 제거 기준을 .50으로 늘려 살펴본 모델 2는 $F(1, 105) = 2.24, p > .05$ 로서 적합한 모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 경제에 이어 2순위, 3순위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의 회귀계수도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변인들은 F 값의 유의확률에 따른 제거 기준에 의해 분석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런데 표 4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상위척도는 경로분석의 최종 내생변인인 학업성취와 자율성과 의미 있는 상관은 없었다. 다만 그 하위척도인 정

보적 지원이 오히려 두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모델에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중 정보적 지원만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표6은 어머니의 기질과 성격의 총 7개 상위척도와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족 경제수준을 모두 합하여 전체 10개의 변인을 투입한 뒤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을 탐색하고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도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beta_0=0$ 에 대한 가설검정의 F 값의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은 변수를 선정하였고 F 값의 유의확률이 .10보다 큰 경우 변수를 제거하는 단계방법을 선정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이 기준에 의하면 여기서도 가족 경제만이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5%에 달했다. 이 모델(모형 1)의 적합도는 $F(1, 107) = 19.12, p < .01$ 로서 적합한 모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분석에 이용되지 않은 변수들의 준거변인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F 값의 유의확률에 따른 변수 제거 기준을 .50으

표 5.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설명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순위	R제곱	R제곱 증가분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F	회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
1. 가족경제	.15	.45	.14	11.33	18.68	6.95	1.61	.39	4.32***
2. 가족경제	.15	.45	.14	11.33	18.68	7.27	1.61	.40	4.53***
자기초월	.16	.01	.14	11.30	4.97	.22	.12	.18	1.79 ns.
자극추구	.18	.02	.15	11.23	7.47	-.21	.14	-.15	-1.50 ns.

*** $p < .001$; ns.; not significant

표 6.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하위척도인 정보적 지원을 설명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순위	R제곱	R제곱 증가분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F	회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
1. 가족경제	.15	.15	.14	4.66	19.28	2.90	1.60	.39	4.39***
2. 가족경제	.15	.15	.14	4.65	19.28	2.75	1.61	.37	4.13***
사.민감성	.17	.02	.15	4.63	.01	.07	.05	.12	1.30 ns.

*** $p < .001$; ns.; not significant

로 올려 살펴본 모델 2는 $F(1, 105) = 2.24, p > .05$ 로서 적합한 모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1.00, 분산팽창계수 VIF=1.00으로서,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지 않고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델 2에서는 가족경제 다음으로 2순위, 3순위로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의 회귀계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들은 F값 기준에 의해서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설명하는 분석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바탕으로 변인들의 관계경로와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변인들의 관계경로는 연구가설에 맞게 중학생의 기질(자신의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한 영역인 정보적 지원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가 설정되었다. 이 때 기질 요인들 중에서 상관분석을 통해서 중학생의 학업성취,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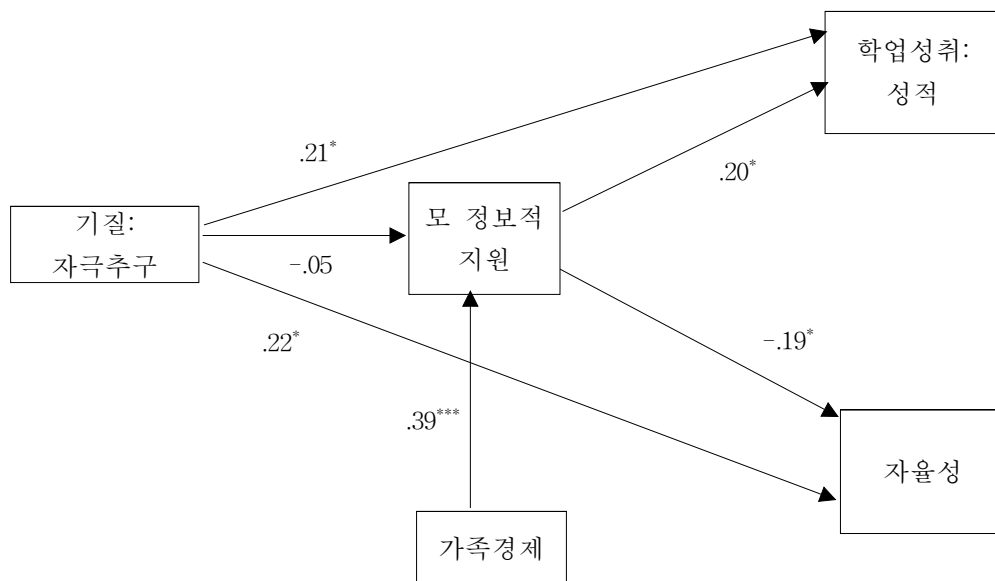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인 정보적 지원을 매개로 한 중학생의 기질(자극추구), 학업성취(성적), 자율성 변인 간의 인과관계 경로 및 표준화 경로계수

표 7. 학업성취 및 자율성의 경로모델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치 추정 결과

모수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p	표준화계수
<u>직접효과</u>					
모 정보지원 <-- 자극추구 기질	-.06	.10	-.59	.55	-.05
모 정보지원 <-- 가족 경제	2.91	.66	4.44	***	.39
자율성 <-- 자극추구 기질	.23	.10	2.42	**	.22
학업성취 <-- 자극추구 기질	.09	.04	2.25	**	.21
자율성 <-- 모 정보지원	-.17	.08	-2.04	*	-.19
학업성취 <-- 모 정보지원	.08	.04	2.20	**	.20
<u>분산</u>					
자극추구	19.02	2.59	7.35	***	
가족 경제	.46	.06	7.35	***	
E(모 정보지원)	21.16	2.88	7.35	***	
E(학업성취)	3.42	.47	7.35	***	
E(자율성)	18.52	2.52	7.35	***	

* $p < .05$, ** $p < .01$, *** $p < .001$

성,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탐색된 자극추구가 외생변수로 설정되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연구가설에 따라 중학생의 기질, 여기서는 자극추구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자녀의 자율성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이 때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총점이 아니라 상관분석을 통해 탐색된 그 하위 영역(최도)인 정보적 지원이 검증할 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이 때 자녀 관련 변인 외에도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탐색된 가족 경제가 모델에 포함되었다.

그림에 나타난 모수치를 분석해볼 때, 중학생의 기질로서 자극추구가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Path coefficient)

는 $P = -.06$ 으로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성적) 및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순서대로 각각 $P = .09$ 와 $P = .23$ 을 보이면서 $p < .0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자극추구는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볼 때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은 자녀의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은 경로계수 $P = 2.91$ 을 보이면서 $p < .001$ 의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가족경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계속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P = .08$, 그리고 자율성에 $P = -.17$ 의 경로계수를 보이면서 두 영역에 모

표 8. 학업성취 및 자율성의 경로모델에 대한 효과 분해표

관계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모 정보지원 <-- 가족 경제	2.91	2.91	.00	3.92	3.92	.00
자율성 <-- 가족 경제	-.49	.00	-.49	-.07	.00	-.07
학업성취 <-- 가족 경제	.23	.00	.23	.08	.00	.08
모 정보지원 <-- 자극추구기질	-.06	-.06	.00	-.05	-.05	.00
자율성 <-- 자극추구 기질	.24	.23	.01	.23	.22	.01
학업성취 <-- 자극추구 기질	.09	.09	-.01	.20	.21	-.01
자율성 <-- 모 정보지원	-.17	-.17	.00	-.19	-.19	.00
학업성취 <-- 모 정보지원	.08	.08	.00	.20	.20	.00

두 유의한 영향($p < .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은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 경제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 및 자율성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림에 제시한 모수치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7 및 표 8과 같다.

표 8이 제시하듯이 인과 경로 중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나타내는 경로는 오직 자극추구가 최종 내생변인인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여기서도 자극추구의 전체 효과는 거의 직접효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경로계수의 효과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볼 때 자극추구 기질이 자율성에 미치

는 전체 효과가 가장 크며 다음 순이 자극추구 기질이 학업성취에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경로모델의 모델부합도를 나타낸다. 먼저 모델적합도 지수인 CFI, TLI, NFI가 모두 .90 이상이어서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부가하여 모델이 부합되지 않는 정도인 RMSEA의 평균 또한 .00으로서 .10을 넘지 않으므로 타당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RMSEA의 90% 신뢰도 구간을 살펴보면 하한치가 .00이고 상한치가 .10으로서 상한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델부합도가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표집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모델의 자유도가 작아서 생긴 결

표 9. 중학생의 자극추구 기질, 자율성, 학업성취(성적) 및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중 정보적 지원 간의 경로모델에 대한 최대우도 모델부합도 지수

모델	NPAR	CMIN	DF	p	NC	CFI	TLI	NFI	RMSEA
연구모델	16	2.15	4	.71	.54	1.00	1.16	.95	.00

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RMSEA보다는 CFI, TLI, NFI 값을 중심으로 모델부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므로(문수백, 2009) 종합적으로 본 연구모델은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곧, 청소년의 기질이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수준이 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가설모델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한국의 대다수 중학생이 가장 중요한 성공 경험으로 간주하는 학업성취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 자율성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선행연구에 기초한 연구가설로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자녀의 가장 직접적인 변인은 자녀가 가진 자동적 정서적 반응 성향인 기질로 보았고, 기질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기질 요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탐색하고자 하였고, 기질 요인이 학업성취와 자율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곧,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은 서

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체계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여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크게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로분석을 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상관분석을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중 정보적 지원이 자녀인 중학생의 학업성취(성적)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자율성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통해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이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에는 유의하게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본 연구 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적 지원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학생의 성적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반면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책임의식과 자기신뢰, 자기수용 차원의 자율성이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이 있다(이화순, 2003)는, 그리고 학업성취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부모라고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박영신, 김의철, 탁수현, 2002)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시기는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며 청소년 자녀 또한 부모에의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므로 자녀의 행동에 직접적인 관심을 덜 기울이는 편이며 때로는 방치하기 쉽다. 그러나 본 연구 집단에 나타난 바로는 중학생에게도 어머니의 정

보적 지원은 성적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중의 하나인 정보적 지원이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에 상반되는 것이다. 즉, 본 연구 집단에서는 어머니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적 개입을 많이 할수록 성적은 향상되지만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인 자기결정력과 의지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자율성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EAS(Emotional Autonomy Scale: Steinberg & Silverberg, 1986)를 통해 측정된 정서적 자율성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다. 즉, 여러 연구가 EAS에 의해서 측정된 자율성은 부모애착이나 부모의 지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Beyers, Goossens, Vansant & Moors, 2003; Lamborn & Steinberg, 1993; Ryan & Lynch, 1989). 그러나 또한 여러 연구들이 청소년의 자율성과 부모 지원과의 부적 상관이나 청소년의 자율성과 이탈이나 정신병리와 같은 부정적인 적응문제는 EAS가 지나치게 부모와의 분리만을 강조하고 진정한 발달적 의미를 측정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개념의 타당도 문제라고 비판했었다(Beyers, Goossens, Vansant, & Moors, 2003; Marsche, 2003; Landgraf, 2003; Schmitz & Baer, 2001).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과 성숙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결과는 EAS를 사용한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자율성과 부모지원과의 부적 상관관계는 비단 정서적 자율성 도구의 타당도

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가정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구조경로를 통해서 본 연구 집단에 나타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자율성 발달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볼 때,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해결에 대한 과도한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입을 할 경우, 자녀의 문제해결 자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결정력과 의지력 차원의 자율성 발달에는 저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또한 충분해진다.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현상이 발달상 어느 연령대까지 또는 어느 연령대에 특히 해당되는 것인지 후속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집단을 통해서 볼 때는 중학교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도울 수 있는, 더 나아가 자율성 발달과 학업성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적절한 정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가족자원 관련 변인들과 그 설명력의 크기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을 때, 어머니의 기질과 성격, 연령, 학력, 가족경제의 분석에 이용된 총 10개의 변인 중 오직 가족 경제수준만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성적) 및 자율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인 정보적 지원으로 좁혀 분석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회귀분석에 투입된 총 10개의 변인 중 가족 경제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상위척도인 사회적 지원이나 하위척도인 정보적 지원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15%이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인들이 서로 차이나는 설명력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결과는 오직 가족 경제만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예측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집단의 경우에는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학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적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경로분석을 통해서 가족 경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중 정보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소득, 학력, 직업과 같은 가족자원이 청소년의 성적에 크게 영향을 준다(이은우, 2006)는, 특히 이러한 가족자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추상엽, 임성문, 2007)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여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어머니와 자녀관련 여러 변인 중 오직 가족 경제만이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사회적 함의가 매우 큰 연구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가족의 경제는 그 자체가 영향력을 갖기 보다는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복한 가정경제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에 대한 필요조건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개인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기질은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율성 발달과 관련된 기질 요인은 자극추구로 탐색되었으며 여기에 관계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하위 영역인 정보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자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에 의해서 매개되는 효과 없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성적(학업성취)과 자율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구체적으로 신기함과 진기함에 대한 탐색적 호기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 자극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고 자율성 발달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결과와 함께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 자녀의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하위 변인인 정보적 지원이 중학생 자녀의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없이 자녀의 성적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율성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일하게 가족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가족 경제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중학생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자율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살펴볼 때, 먼저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행동 경향성으로,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자녀로부터 자극되거나 촉진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청소년 자녀의 태도와 상관없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일방향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인성 특성 중 기질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어있고 기질적 특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경과의 마찰과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인 것이다 (Cloninger, 1999; Cloninger et al., 1994).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타고난,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기질에도 책임이 있음을 가정하였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의 한 영역인 정보적 지원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중학생 자녀로부터 의미 있는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본 연구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원은 자녀의 특성, 즉 신기함과 진기함을 좋아하고 탐색적 호기심이 크며, 감흥이 크고 쉽게 흥분하며 또한 쉽게 낙심이나 실망, 포기, 분노를 하는 자녀의 자극 추구 기질로부터 의미 있는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상관없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자녀의 학업에 올인 하며 끝없이

인내하고 헌신하는 한국의 어머니상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녀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정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헌신적 사회적 지원이 본 연구 집단에만 국한된 특징인지 또는 한국어머니의 특성인지 아니면 범문화적 특성인지 계속되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가 시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시도하고 부모는 청소년이 독립하기를 바라는 것이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정보적 지원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성취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는 부모의 적극적인 정보적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칫하면 청소년의 발달과제인 자율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중 하나인 정보적 지원에 매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성과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볼 때 기질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성취(성적)와 자율성 발달을 돕고자 한다면 기질의 영향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에 대한 특별한 이해 없이 나타난 행동이었으므로, 자극추구와 같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어머니가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한다면 자

녀의 학업성취와 자율성은 어머니의 지원을 매개로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연구대상이 경기도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또한 대부분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경로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회귀계수의 일관성을 얻으려면 변수 당 최소 20명의 연구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된 5개의 변수를 위해 어머니와 자녀의 수를 각각 100명 이상 포함(어머니, 청소년 각각 $n=109$, 도합 $n=218$)시켜서 통계적으로는 표집의 크기를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적 조건이고 연구결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보다 큰 표집단이 권장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처럼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와 가족 경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획득한 시험성과 부모의 실제적 연봉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사용한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보완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2010). 스트레스, 우울, 자살의 이해와 예방: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 극복 효능감, 스트레스관리 교육의 영향. 초. 중,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197-219.
- 남순현, 임소영 (2006).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53-967.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 메뉴얼. TCI-Family Manual. 서울: 마음사랑.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한국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19-348.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 검사 메뉴얼. 청소년용. 서울: 마음사랑.
- 이은우 (2006).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3(6), 247-273.

- 이화순 (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학업성적 차이연구. *아동교육*, 12(2), 137-150.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 조의준 (2009, 05, 06). 위기에 강한 한국의 저력: 교육열 세계 최고. 미국 내 유학생 수 한국이 1위. *조선일보*. <http://www.businessnews.chosun.com>에서 2001, 5, 6 인출.
- 추상엽, 임성문 (2007).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간의 관계: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와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497-512.
- 헤럴드경제 (2010, 01, 05). 헤럴드포럼: 새해 교육에 소망한다. <http://biz.heraldm.com>에서 2010, 1, 5 인출.
- Beyers, W., & Goossens, L. (1999). Emotional autonomy,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parenting: interactions moderatin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2, 753-769.
- Beyers, W., Goossens, L., Vansant, I., & Moors, E.. (2003). A structural model of autonomy in middle and late adolescence: connectedness, separation, detachment and ag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5), 351-365.
- Blos, P. (1983). *Adolescence*. Stuttgart: Klett-Cotta.
- Chou, K. L. (2000). Emotional autonomy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1(2), 161-168.
- Chou, K. L. (2003). Emotional autonomy and problem behavior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4), 1105-1117.
- Cloninger, C. R. (1999). A new conceptual paradigm from genetics and psychobiology for the science of mental helth. *Aust N Z J Psychiatry*, 33, 174-86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Cloninger, C. R. & Svrakic, D. M. (199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iatry*, 60, 120-141.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ollinger, S. J. (1991). Personality and performance in "personality":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3), pp.276-284.
- Erikson, E. H. (1977). *Identitaet und Lebenszyklus*. Frankfurt: Suhrkamp.
- Eysenck, H. J. (1970).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3rd ed.). London: Methuen.
- Fishbein, M. & Aizen, I. B. (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Garnefski, N., & Diekstra, R. (1996).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chool, and peers:

- relationship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12), 1657-1664.
- Greenberger, E. (1984). Defining psychosocial maturity in adolescence. In P. Karoly & J. Steffen (Eds.), *Adolescent behavior disorders: Foundations and contemporary concerns*. (pp.54-81). Lexington, MA: Heath.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141-165.
- Goldberg, L. R. (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 26-34.
- Goth, K. (2000). *Konstruktvalidierung des JTCL*. unveroeffentlichte Diplomarbeit, J.W. Goethe Universitaet Frankfurt/M.
- Havighurst, R.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Mckay, New York.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 Psychology*, 33, 333-350.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319-335.
- Hendry, L. B. (1993). *Crowing up and Going out*. Aberdeen: Aberdeen University Press.
- Hurlock, E. B. (1973). *Tran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McGrawHill Kogakusha, Ltd.
- Kim, U. (1996). *Illness behavior pattern of Korean Nationals. Korean-Canadians, Korean-Americans, and Korean-Japanese*.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학술세미나. 주제: 질병행동과 정신건강.
- Lamborn, S. D., & Steinberg, L. (1993). Emotional autonomy redux: revisiting Ryan and Lynch. *Child Development*, 64, 483-499.
- Landgraf, J. (2003). *Emotionale Abloesung im Jugendalter: Ein Methodenstudie*. Unveroeffentlichte Magistararbeit, Universitaet Leipzig.
- Marsche, J. G. (2003). *Familienbeziehungen zwischen Schule und Ausbildung*. Muenster: Waxmann.
- Newcomb, M. D., & Bentler, P. M. (1988). *Consequences of Adolescent Drug Use: Impact on the Lives of Young Adults*. Newbury Park, CA: Sage.
- Noom, M. J. (1999). *Adolescence Autonomy: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Delft, The Netherlands: Eburon.
- Overbeek, G., Have, M., Vollebergh, W., & Graaf, R. (2007). Parental lack of care and overprotection: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DSM-III-R disord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 87-93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78.
- Schmitz, M. F., & Baer, J. C. (2001). The vicissitudes of measur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n the Emotional Autonomy Scale. *Child Development*, 72, 207-219.
- Steinberg, L., Dornbusch, S., & Brown, B. (1992).

-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 achievement i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7, 723-729.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ombia University.
- Westerman M. A., & La Luz, E. J. (1995). Marital adjust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1, 453-470.
- Zhang, L. (2003). Dose the big five predict learning approach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8), 1431-1446.
- 원 고 접 수 일 : 2010. 06. 26.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29.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8. 22.
최종게재결정일 : 2010. 08. 23.

Effects of Factors on School Achievement and Self-directedness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ed on Mothers' Social Support

Hyunsook Oh

Han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factors on school achievement and self-directed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a path model. In particular, it examined the hypothesis that the mother's social support functions as a mediator between the temperament of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achievement and self-directedness development. We tried to seek and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support provided by mothers.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a total of 116 middle school students (male=57, female=59) and their mothers were assessed through the TCI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he Junior-TCI, Questionnaire on Parental Social Support, and a questionnaire about school records. As a result, we determined that the mother's social support was influenced only by the financial status among a total of 20 variables concerning the mothers' and children's personal and demographic information. Under variables related to the mothers' social support, the informational support was especially related to the adolescent's school achievement and self-directedness. In the analysis of the path model, the family's financial status had a significant yet indirectly positive effect on the adolescent's school achievement and a simultaneous indirect, negative effect on their self-directedness through the mother's informational support mediator. However,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a mother's social support between the adolescent's novelty seeking temperament, and their school achievement or self-directedness. This outcome was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mothers' social support, for the researched group, is not affected through the children's reactions.

Key words : school achievement, personality development, social support, novelty seeking, self-directedness, path model